

## 23. 단을 쌓는 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은 단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 단이 없으니 땅바닥에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른다. '단이 없다.'는 말은 자기 멋대로 했다는 뜻이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자기 의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출을 하나님께 내보이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출이 아니라 존재를 원하신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다. 세상에서는 소출을 원한다. 심지어는 육신의 부모도 소출을 원하는 수가 있다.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거나 이름을 얻으면 부모는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야 되지 정하지 않은 길을 걸으면 안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형상화를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주인이 콩을 뿌렸는데 흙이 자기 마음대로 수박을 내면 안된다. 콩이 필요해서 콩을 뿌린 것이니까 주인은 흙이 콩을 100% 살려내고 많이 생산해 내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이 농부라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는 방해거리다. 기계도 마찬가지다. 기계는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움직여야 되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안된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아주 훌륭한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이 없었다.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없으니 왜 의인이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다. 당시는 네피림의 세계였다. 그 세계는 천사와 인간이 결합한 세계다. 천사와 인간이 이미 결합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네피림이다. 결합한 것이지 연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결합하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으신 것이다.

처음부터 콩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흙을 통해 콩을 생산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콩을 계속 생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씨를 만들어서 씨가 퍼지도록 해야 되지 하나님이 계속 콩을 만드신다면 말이 안되는 일이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단을 쌓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노아는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가인과 아벨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단 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다. 여기서 단의 길이 제시되었다.

홍수가 그치고 물이 드러났다. 그래서 노아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땅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땅은 보존되어야 한다. 사람도 땅이고 땅에 살아야 되니까 땅을 보존해야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사람에게 맡기고 채소같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는 식물만 주고 동물은 주지 않았는데 9장에 오면 동물도 주셨다. 다만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지금도 과학적이다. 동물을 잡을 때 피를 빼야 되지 그대로 두면 빨리 부패한다.

그보다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이 되었다. 그들은 무엇을 잡든지 피는 먹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

무지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쪽에서는 비가 오고 한쪽에서는 태양이 비치면 무지개가 서는 것이니까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무지개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풍년이 들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풍성하게 되었다. 포도가 풍성하다는 말은 아주 부유해졌다는 뜻이다. 우리는 벼농사가 잘되면 풍년이라고 하는데 그 지방에서는 포도가 잘되면 당연히 포도주가 잘되니까 그것이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부잣집 같으면 포도주가 많은데 가난한 집이었으니 포도주가 떨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잔치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었는가를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가난한 집에서는 돼지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부잣집에서는 소를 잡는다. 제주에서는 삼 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서 돼지를 몇 마리 잡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집 잔치가 얼마나 크고 풍성했느냐를 가름한다. 지난 번에 들으니 누구 잔치에 돼지를 아홉 마리 잡았다고 하니 얼마나 손님이 많았고 풍성한 집인지 알 수 있다. 포도주가 풍성했다는 것은 풍년이 들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하체가 벗겨졌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체 문제가 상당히 특이하다. 통일교에서는 사람이 타락한 것이 하체 문제라고 생각한다. 타락한 후에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번역했는데 치마가 아니라 위에서 밑에까지 걸치는 거들(aprons, coverings)이다. 우리말 성경에 치마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하체를 가리려고 치마를 입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묘한 교리가 나온 것이다. 하체 문제가 요즘도 심각하다. 성희롱이니 성추행이니 성폭력이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 있다. 통일교에서 성적인 범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체 문제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피를 갈라야 한다는 데로 넘어가서 피가름을 주장했다. 지금은 부정하지만 초창기에는 분명히 그런 주장을 했고 그때 자유당 시절인데 상당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본 함은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 함이 보고 덮어드려야 할 텐데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을 하고 흉을 보았다는 것이다.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왔다.

술이 깬 다음에 노아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함을 저주했다. 함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고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며 야벳은 창대할 것이라고 각각 세 아들에게 예언했다. 이것을 서양 기독교는 흑인을 함의 후예라고 생각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고 했으니까 흑인이라 생각했고 흑인은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노예를 삼았던 것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긴다.

왜 함은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은 생명이냐 도덕이냐의 문제다. 풍년이 들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이것을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 아내 미갈이 창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왕이 되어 무슨 체신머리 없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이냐고 나무

랐던 것이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로 왕실에서 자란 여자로 다윗은 목동이였다. 그래서 무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백성과 함께 올라가는데 네가 왜 나를 비난하느냐?”며 미갈과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도덕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고 일상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도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 종교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안되는 것이다. 어떤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면서 “너를 살려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그래서 죽인 것이다. 불경하다, 참람하다, 그냥 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십자가에 단 것이다.

중세 가톨릭은 많은 이교도들과 교리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처형했다.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인 숫자보다 가톨릭이 이단이라고 죽인 숫자가 많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죽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죽였다.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법이 허용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무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정교분리 정책을 쓰게 되었다.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그런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 미국은 건국하면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이단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알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생각이다. 정치가 종교를 끌어들이면 망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종교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천지가 잘 못된 종교집단이니까 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통이라는 교단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하게 되고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더구나 종교가 무력을 갖고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가 들어가면 안되는 금지된 영역이다.

도덕이나 지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정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길이 다르니까 종교와 정치, 둘이 결합하면 절대로 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길이 희미해져서 세상인지 종교인지 잘 모르게 되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을 죄악이라 하였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다. 제물 자체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곧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에 가인이 분을 내고 있으니 “네가 왜 분을 내느냐?”고 하셨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다.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라 자기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제물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받으시는 이의 문제인데 왜 아우를 죽였는가? 같은 이치다. 소위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다. 참람하다.” 하며 예수를 죽였고 다른 사람들도 죽였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월권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받고 안받으실 것은 안받으시는데 “왜 네가 분을 내느냐?”고 하셨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지 분을 내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죄다. 이것은 이랬으니, 저것은 저랬으니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네페림을 왜 죄악이라고 하는가? 이미 자리를 벗어났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네페림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 세대에서 가인과 아벨로 나타났고 십 대를 지나 이 세대에서 네페림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을 형상화해야 하는데 천사와 결합해서 네페림이 되었으니 아주 쓸모없게 된 것이다. 영 위험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다.

핵을 개발해서 발전을 하니 얼마나 편리한가! 지금도 원자력 발전이 제일 싼 값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만일 터지는 날에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20여 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터지는 날이면 땅도 안남아 날 것이다. 일본에서 하나 터져서 피해가 엄청났다. 사람이 네페림이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망한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왔다. 지면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를 내려서 멸하신 것이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8장에 오면 노아를 축복하신 데가 나온다.

물이 그치고 물이 드러나니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다. 여덟 식구가 나왔고 그 안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방주 안에는 노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같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다. 좋은 것 나쁜 것 가리지 않고 다 있었다. 이것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노아는 왜 의인이었을까,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만유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피림들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으면 했겠는가? 자기 혼자 살아야 하니까 안한다. 네피림은 둘이 있으면 안된다. 싸워서 자기 혼자 해야 된다. 패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지금 세계도 그러하다. 강대국끼리 마음을 맞춰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서로 패권을 놓고 싸운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게 될 것이다. 소련이 미국과 대결해서 싸우다 안되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갔다. 러시아에는 식량이 없어서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결국은 공산주의를 접고 자유국가로 변신했다. 러시아 제국은 굉장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잘못되어서 혁명이 일어났지만 당시 러시아는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히랍 정교회가 지배하던 세계였는데 종교가 잘못되고 나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축복을 하실 때 모든 동물들을 식물로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은 원래 만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만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이 이미 만물을 포함할 그릇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일이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하신다. 아담은 원래 만유를 포함하도록 지어졌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 만유가 포함된 것이다. 아담은 만유의 대표자, 인류의 대표자로 지어졌다. 어떤 사람도 아담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이고 아담 한 사람만 잘되면 다 잘되게 되는 것이다.

축구 경기를 보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는 천재다. 그 선수만 있으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차는지 신기하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 그 팀은 천하무적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담 한 사람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 사람이 아담이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를 포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방주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을 의롭다고 한 것이다. 어떻게 다 포함할 수 있는가? 도덕군자가 되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데는 십자가가 필요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특이하다. 돌로 치거나 몽둥이로 때리면 바로 죽지만 십자가에 못박아 놓으면 여러 시간을 고통을 받다가 죽는다. 아주 잔인한 형벌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뛰어내려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 와 보라.”라고 했으니까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내려올 가능성을 가지고 네피림에 도전해 보라는 것이다. 만약 거기서 내려왔다면 가장 유명한 네피림이 되었을 것이고 네피림의 대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네피림 안에는 만유를 포함할 수 없다.

노아 안에는 만유가 포함되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자기의 형상을 지어 놓은 것이다. 사람은 다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는다. 사람은 밥을 먹고 공기를 마셔야 산다. 그래서 기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기름을 안먹고 공기를 안쓰고 돌아가는 기계는 없다. 무엇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움직인다. 사람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풍년이 들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태평성대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만유를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드리면 안된다. 단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다고 하면 안된다. 몽둥이나 칼에 맞아 죽으셨다고 해도 안된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와 보라.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라는 조롱 속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 주셨다. 거기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격을 보고 ‘아! 저것이 나구나. 저것이 참 사람이구나.’라고 알아야 네피림이 진짜가 아니라고 알게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네피림을 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기  
능만 남고 능력만 남았다. 그래서 능력 있는 것만 사람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안보이  
니까 능력 없는 것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사람이 보이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보인다.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라고 하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해도 안된다. 대장과 졸병을 어떻  
게 같이 보겠는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차별이 많은가. 능력이 다르니까 차별을 안할  
수 없다. 이것을 평준화하려고 하면 나라가 안된다. 소유를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 공  
산주의다. 평등하면 나라가 안된다. 차별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똑같이 월급을 받는다면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는가. 똑같이  
받으면 공평하고 좋을 것 같지만 나라가 안된다.

유럽에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공부를 하나 안하나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공부도 하고 싶  
은 사람만 한다. 정부가 다 먹여 살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 그런 사회  
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꾸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그 사회는 기울어지는  
해와 같은 사회다. 사람들이 아무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다.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세상은 경쟁하면서 앞다투어 서로 먼저 가려는 맛으로 사는 것인데 그런 맛이  
없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  
다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다. 그러니 돈을 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공  
부도 하고 싶고 취미가 있어야 한다. 어찌 보면 참 좋은 나라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이 안된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면 공평해질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십자가에 못박혀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 이것  
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이다. 그것이 나로 발견되어야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  
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식이 안온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오다가  
앞으로 가면 나도 그 사람을 추월해서 앞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피곤한 것이다. 그  
러니 안식이 오겠는가.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다. 경쟁하고 달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먹고 살기 위해 더 바쁘고 더 시간이 없다. 좋은 차  
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느라고 시간이 없다. 그것 자체가 인생이니까 인생이라는 시간  
이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끼리 달리다 죽는 것이다.  
서로 네피림이 되려고 하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벨로 가는 길이다.



여기서 기독교 안에 이성이나 계시나 하는 문제가 생겨났다. 네피림의 세계는 이성이 다. 사람에게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양 기독교 사에서 중세 기독교는 비이성적이었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사상적인 신념이 생기고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게 되면 사람은 비이성적이 된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성이 사라지면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 멀쩡한 사람을 이단이라며 잡아다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인가. 그 세계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이성은 어디가고 없으니까 동물과 같이 된 것이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동안에 계몽주의가 나왔다. 이성이 회복돼야 하겠다는 자성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르네상스라 할 수 있고 계몽주의라 할 수 있다. 그때로부터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었다.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성은 완전한가? 사람이 없는 이성은 없다. 사람이 없는데 이성만 따로 있겠는가? 어차피 판단할 때는 사람이 한다. 그 사람 자체가 빛나가 버리면 이성도 빛나간다. 사람이 빛나갔는데 이성이 그냥 있겠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성적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논리적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논리는 이성이다. 옳든 그르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다. 논리가 맞으면 이성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산 혼이고 산 혼의 구성요소가 지, 정, 의다. 이성만 너무 강해도 안되고 감정만 너무 강해도 안되고 의지만 너무 강해도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 성공하려면 이성적이라야 한다. 감정적이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성이 있어야 되지 의지만 가지고도 안된다.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씨를 보면 예민하고 예리하게 생겼다.

의지만 갖고도 안된다. 의지에도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이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성을 가장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이미 위치가 빛나가 버렸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는가?

나도 어려서부터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무슨 고민을 하게 되었

는지 아는가.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믿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의심이 되었다. 이 문제가 안풀렸다. 아무리 해도 내 이성으로는 풀 수 없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알겠는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아차,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라고 아는 날이 왔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이 없으면 안된다. 그러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이성이 있는 것이지 이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양심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 아닌 다른 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는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하천풍언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다. 문둥이나 결핵환자들과 같이 살기도 하고 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분이다. 그가 인도에 가서 간디를 만났는데 간디가 그에게 “선생은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성전(聖戰)이라고 믿습니까?”라고 물었다. 일본은 대동아전쟁이 성전이라고 선전했다. 동남아 일대가 한 지붕밑에 살고 평화를 이루자는 명목으로 벌인 것이 대동아전쟁이다. 간디의 질문에 일본의 성자라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간디가 돌아앉아 버렸다고 한다. 간디의 양심과 하천풍언의 양심이 달랐던 것이다.

양심이 결국은 인간이다. 인간이 빛나가면 양심도 빛나는 것이다. 인간이 빛나갔는데 양심이 그냥 있겠는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러하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것을 보면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양심이 다르고 이성이 다르다.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편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없는데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계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 차별이 없이 다 같다. 물론 계시도 이성으로 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만들어지기를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성은 우리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공장이 다르다.

복음은 계시다. 내가 이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든 그것은 믿을 수 없으니깐 우리가 찾아 보자는 것이다. 우리에게서부터 찾아 올라가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까지 올라가 지겠는가? 그것이 바벨탑이다. 하늘에 오르는 것이고 이름을 빛내자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뒷동산을 보면 그 위에 하늘이 보이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하늘이 가까울 줄 알았다. 그러나 올라가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구속할 줄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다. 거기서 만유가 포함될 줄 누가 알겠는가. 다 네피림만 기다리고 있고 네피림만 사모하고 있다. 거기서 구원이 올 줄 알고 네피림만 섬기고 있는데 예수, 나사렛 사람, 이 사람의 죽음 속에 만유가 포함된다는 것은 비밀이다. 여기서 발견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다.

빛나간 아담 안에서 발견된 나는 이미 저주받은 나다.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죽도록 일해 봤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저주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 결론이 없는 일을 하고 갈 데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저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갈 곳이 없었다면 저주였을 것이다. 가나안이라는 갈 데가 있었으니깐 그들의 길이 헛되지 않았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네피림 이전에 나온 것이 칠백 년, 팔백 년, 구백 년을 산 장수족인데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다. 아들을 낳고 살다 죽었다는 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깐 '인생은 허무하다.' 이것이다. 알고 보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없다. 해봤자 어차피 빈손이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 안될 것을 계속하는 것이 저주다.

성공하는 사람은 될 일만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안될 일만 골라서 한다. 증권하다 망한 사람들은 다 안될 것만 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망하는데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잘되는데 망한다. 그 사람을 보면 망할 짓만 한다. 그러니 망하는 것이다. 돈을 쓰기만 하고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쓸 줄만 알고 벌 줄 모른다. 이성이라고 해봤자 도로 자기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도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피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를 알지 않으면 복음이 없다. 나를 지으신 이가 인생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을 알아야 한다. 계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다. 복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주시겠는가? 이미 복을 만들어 놓았다.

개는 개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고 물고기는 물고기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짝 바닷물에 살면서도 자기 몸 속에는 짝물이 없다. 생선을 먹어 보면 심심하다. 신기하다. 사람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삼투압에 의해서 몸이 해체되어 버린다. 그런데 물고기는 그 물 속에서 산다. 다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찾아 먹고 안될 것만 찾고 있는 것이다. 허무한 것, 망할 것만 찾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네피림이 되는 것이고 바벨탑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거기서 인생의 길이 다 보여졌다.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 사람이 원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다. 먼저 위치를 회복하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 안에서 나도 부름받았다. 백 살이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길이 나에게 좋게 보였다. 백 살에 아들을 낳은 기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백 살이 되어 아무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생겨서다.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었다. 야곱이 노력해서 얻었지만 빈손이 되어 절망이었을 텐데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래서 그 길로 온 것이다. 오다 보니 예수께로 왔다. 그 길이 예수께로 오는 길이였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나를 아는 사람은 더욱 이해 못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모른다. 그 친구에게만은 이 복을 꼭 주고 싶어서 녹음 테이프를 보내 주고 많이 듣게 했어도 이상하게 잘 안된다. 그러니까 길이 보인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구속이다. 그 길이 구속의 길이다. 우리가 원 위치를 찾아가는 길이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길로 와 보니 어딘가? 천당이 아니고 예수 안이다.

나는 평생 이 길로 왔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나는 대구에 와서 예수 외에 아무것도 이야기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들어 보니 '왜 설교를 하고 있나? 설교를 한다고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하겠지만 나는 그런 설교를 할 시간이

없다.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밝히기도 바쁘는데 언제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이 있겠는가. 좋은 것이 많은 줄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시간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을 저렇게 고치라고 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였다(롬11:29).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그분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물론 나도 실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많지만 길을 바꾼 적은 없다. 바꿀 수도 없었고 바뀌지지도 않았다. 내가 늘 기차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번 타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내 체질에 딱 맞는 길이다.

나는 망설이는 사람이다. 가다가도 뒤돌아보는 성질이다. 한참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것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다. 나와 일하면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애를 먹는다. 나는 일에서는 그런 사람이다. 일편단심 한 가지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의 길, 이 길은 일편단심이다. 사십오 년 동안, 오십 년 동안 이 길만 생각했다. 나는 성질 자체가 이럴 수 없는 사람이다. AB형이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어느 한의원에 가니 원장님이 나를 보고 한참 생각하더니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나는 일을 하면 그렇다. 못을 박아도 완전히 박지 않는다. 다시 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박지 못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맡겨 버린다. 내가 관여하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 일 안된다. 세상에서는 출세 못할 사람이다.

우물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데 나는 이것만은 한 우물을 파게 되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렇게 된 것이 없다. 아무리 좋아도 조금 있으면 싫증이 나서 다르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사십오 년 동안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나를 보면 신기하다. 이 길은 내게 딱 맞는 길이다.

사실 이 길은 인생에게 딱 맞는 길이다. 나에게만 맞는 길이 아니라 인생에게 딱 맞는 길이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할 수 없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One Way다. 일이어서가 아니라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나는 이 길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이 길에 있어야 사는 사람이다. 내 인생을 찾아서, 내 인생대로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는 것이다. 나는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후회가 없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었다. 남이 어떻

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내 몸에 맞다. 아브라함의 백 세, 야곱의 빈 손, 이것이 내가 입으면 맞는 옷이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갈 길이 명백하게 찾아지기 원한다. 안그러면 평생 허송세월 하게 된다. 버나드 쇼의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바울은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라고 말했다. 이 길밖에는 그렇게 말할 길이 없다.

한 길이다. 하나님은 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개에게는 개의 길을 주셨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길을 주셨다. 당연하지 않은가! 사람에게 천사가 되라고 하거나 네피림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다. 흠으로 지어진 그 사람 그대로다.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원하신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면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 기도도 오래 못해 보았다. 40일 금식기도가 아니라 3일도 못해 보았다.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이다. CCC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3일 금식기도를 했다. 안할 수 없어서 했지만 안죽고 산 것이 다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안풀리면 언제든지 물어 보기 바란다. 내 생각에는 대답 못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물어 보고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혼자 ‘이럴 것이다.’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된다. 나는 물어 볼 사람이 없었는데 물어 볼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청년인 여러분들은 문제가 많을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물어 보자. 문제를 제기하자. 그러면 해결의 길이 생긴다. 속에 넣고 있으면 해결이 안된다. 만일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나도 고민하게 되니까 나는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한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 가서도 두려워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해야 한다. 몰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번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든지 저렇든지 하나도 부끄러울 일이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담을 쌓았는가? 후보가 있느냐고 묻고 후보도 없는 교회가 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만들면 되지 꼭 후보가

있어야 되는가? 실상을 모르니까 ‘다른 교회에는 주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상을 알면 담대해진다. 우습고 시시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주보가 있느냐고 물으면 왜 그것이 필요한지 물어 보고 우리를 그런 것이 필요없으니까 안한다고 하면 되고 사도신경을 외우느냐고 물으면 그런 것이 필요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된다. 모르면 왜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고 물어 보면 된다.

나는 내 손으로 철틀로 쓰고 등사판을 굵어서 8년 동안 매주 주보를 만들었다. 거기서 무엇이 나왔는가. 아무것도 안나왔다. 내가 만든 주보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주보였다. 시시하게 현금 광고나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었고 설교 요약도 해 놓았다. 등사 잉크가 묻어서 손이 시커멓게 되면서 8년을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주기도문을 외우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외우면 좋고 매일 하면 좋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지 중얼중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하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 말고 부딪쳐 봐야 한다. 직장에서도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쳐 보자. 우리 복음에 문제가 있으면 발견되어야 하고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까 도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 비겁하게 피하지만 말고 당당하게 도전해 보자.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